

01

경일대학교

## 남들 취업 준비할 때 나는 자기 계발한다!



• 오 세 민

### 저조한 청년취업률을 무시 못 해

오세민 학생은 무엇보다 학비 걱정 없이 4년제 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저조한 청년취업률도 무시할 수 없었고 취업 준비를 인턴보다는 정직원으로 프로젝트 실무자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한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 학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활발 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면서 알찬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취지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것에 박수를 보냈다. 회사에서 일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자연스럽게 심화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연쇄효과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이 업무 능력 또한 향상해주니 전공이해도가 높아져 원–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 공부에 욕심이 생기고 학업 성취감이 커

고등학교 때는 로피탈의 정리, 플레밍의 원손법칙, 파열음 파찰음 등 ‘이걸 활용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의욕이 안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실습과목이 많아서 수업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성취감이 크고 지금 하는 공부가 내년에 바로 활용됨을 알기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학기가 거듭할수록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뿌듯했습니다. 학업적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취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스팩을 쌓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스팩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남들 취업 준비하는 시간에 어학 공부도 하고 해외체험도 하면서 독서까지 여유롭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

## 현대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이자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곳의 학생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에 대해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위해 연구하면서 산업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만족스러운 걸 꼽자면, 현직 PL(Project Leader)급인 분들은 단순히 트렌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오랜 경험과 정보들을 통해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6~7년 일찍 접한다면, Advanced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잠재력이 가장 기뻤습니다.”





##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한 조언

### 학교와 회사를 선택할 때 고민이 된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특성상 회사에 입사해야 입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회사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으며,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공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 산업에 대해 검색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도 중요 한데, 현직자들의 리뷰나 회사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회사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또래보다 빠른 취업, 남다른 목표가 있는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만큼 나중에는 더욱더 유능한 선임, 팀장, 경영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취업이 됐다고 안도하지 말아야 하며 꾸준히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써야겠습니다.”

한편,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들을 발굴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홍보한다면 더 좋은 기업이 경일대 학과와 협약을 맺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인재가 참여해 선순환을 일으킬 것 같다는 바람도 내놓았다.